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 Vol. 6, No. 1, 1-18.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국 화 하 은 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673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외상경험 그리고 자기효능감 측정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과 외상경험,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과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때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 대인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 모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외상경험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낮춤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사회불안, 대인불안, 수행불안,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며, 2008년도 임상심리학회에서 포스터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은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Tel : 02-2077-7176, E-mail : graceha@sookmyung.ac.kr

www.kci.go.kr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예민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경향으로 일을 수행해야만 하거나 남이 나를 지각하고 평가할 때 혹은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때 경험하는 불안이다. 남들이 지켜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은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능이나 수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낄 경우, 본인의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역학연구에서 보고된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율은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 15.5%로 주요우울장애(17.1%)와 알코올의존(14.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Kessler et al., 1994).

사회불안은 평균 12-13세경인 청소년기 초기에 발병된다고 보고되었다(Strauss & Last, 1993).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의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Essau & Peterman, 1997), 적당한 수준의 사회불안은 오히려 과제의 수행을 돕는 등 사회적 기능에 있어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Widiger, 2001). 하지만 불안 수준과 지속성이 지나친 경우,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유해한 요인이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과민한 경향을 보이며 감정부전증, 고독감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Beidel, Turner, & Morris, 1999), 등교거부, 우울증, 신체화 장애, 약물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Last et al., 1992). 또한 일반 지역사회에서 14-24세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학조사에서 사회공포증의 평생유병율이 여성은 9.5%, 남성은 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시기의 사회불안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로서 아동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자 과도기이며 이 시기의 발달 결과에 따라 성인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회불안은 불안의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안과 대인상황에서 느끼는 대인불안으로 나뉜다(오경자, 양윤란, 2003).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수행상황에서 느끼는 긴장감, 걱정 및 두려움으로 정의된다(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대인상황에서의 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사회불안 발생에서 중요한 요인(오경자, 양윤란, 2003)으로 작용한다. 외상경험이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일컬으며 Tedeschi와 Calhour (1995)은 사건을 외상적으로 만드는 6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외상적일 수 있다(McCann & Pearlman, 1990). 둘째, 통제감 상실을 경험하여(Slaby, 1989) 무력감(a sense of powerlessness)을 느끼고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위협받는 것이다. 셋째,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며(McCann & Pearlman, 1990). 넷째, 사건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Davidson, Fleming & Baum, 1986)되어서 심리적

www.kci.go.kr

고통을 가져오고 그러한 고통이 무망감(a sense of hope
lessness)을 야기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건의 경험이 비난을 끌어들이며(Downey, Silver & Wort man, 1990), 마지막으로 인생주기의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인기에 사건을 경험한 것과 아동기에 경험한 것은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성인기에 경험한 사건은 이미 형성된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만,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건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인생 전반을 통해 그 영향이 계속 따라 다닐 가능성이 더욱 크다.

외상경험은 고전적 조건형성 과정을 통하여 사회공포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이끌어 사회기술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외상경험의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며(오경자, 양윤란,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 강민지, 2006),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행상황에서의 과잉된 표현, 부적절한 행동, 어색함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공포증 환자의 대부분은 외상경험으로 인해 사회 공포증상이 발현되거나 혹은 증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이러한 높은 외상경험에 대한 보고가 사회공포증의 특성이라면, 정상 집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사회 공포증 집단의 경우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불안장애에 대한 Beck, Emery 그리고 Greenberg (1985)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생각은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인지요인들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사회불안에서 인지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rnkoff & Glass, 1989; Butler, 1985; Heimberg, 1994). 조용래(1998)와 박은정과 하은혜(2007)와 박하나(2006)의 연구에서 인지요인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역기능적 신념은 사회불안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조용래, 원호택, 1997; 유하나, 2006; Maddux, Norton & Leary, 1988; Beck, 1985; Edelman, 1985; Doefler & Aron, 1995; Wallace & Alden, 1991). 불안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심리적인 해가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취약성, 자신의 대처 능력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환경의 위험이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은 위험이나 위협 자체의 실질적인 특성 못지않게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반면, 문제에 대해 효능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성취를 증진시키고 수행의 질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에 취약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Bandura, 1983; 1995). 엄미경(2003)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변인들과 행동을 연관시켜주는 인지적 매개역할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사고유형, 정서, 행동 및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외상경험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여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매개역할을 할

www.kci.go.kr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Shere과 Adams(1983)는 자기효능감을 수행경험과 관련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경험과 관련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 지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과 불안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기효능감이 불안을 일으키는 세 가지 중요한 경로를 제안하였다. 첫째,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생활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효능감의 부족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믿도록 만들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고의 통제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은 불안과 우울을 부추긴다. 자기효능감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증가한다면 불안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Maddux, Norton & Leary, 1988; Beck, 1985; Edelman, 1985; Doefler & Aron, 1995), 유하나(2006)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다. 신혜진(2005)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요인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Wood, Mento 그리고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된 과제관련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 향상될 수 있으며(Bandura, 1986) 다양한 훈련절차를 통하여 고양될 수 있다(e.g., Frayne & Latham, 1987; Gist, 1989). 즉, 과제의 성공적 완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andura, 1997), 다른 인지요인보다 학교교사 혹은 또래의 영향으로 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데 이때 부정적 경험인 외상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춘다.

최근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불안의 증상차원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불안의 기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인지적 측면에 편향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인지요인의 중요한 측면임에도 사회불안의 관련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규명된바가 없으며 청소년기 인지모델에 기초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드물다. 또한 사회불안 연구에서 여러 중재 및 매개변인의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차원을 세분화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타인의 평가 및 시선에 예민하고 사회불안이 발병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변하기 쉬운 특질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서 사회불안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외상경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상경험의 누적 효과로 인하여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

www.kci.go.kr

다. 또한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관계를 수행경험과 관련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Shere & Adams, 1983)이 매개할 것이며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대인관계경험과 관련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here & Adams, 1983)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서울 · 경기지역의 3개 중학교 1,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700명이 참여하였다.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673명이며 중학생 332명(49.3%), 고등학생은 341명(50.7%)이며, 남자 청소년은 323명(48.0%), 여자 청소년은 350명(52.0%)이었다.

측정도구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1998)가 개발한 개정판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범위는 18-9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92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수행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 ·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9개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90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척도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제작한 외상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총점이 10-50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경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72,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73이었다.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 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였고 김현숙(2001)이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을 측정하는 총 23개 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를

www.kci.go.kr

사용한다. 총점은 23-11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81, 사회적 자기효능감 .65로 나타났다.

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2008년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학생, 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교육을 받은 학교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후 연구자가 2-3일 후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과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모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가설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외상경험 및 자기효능감의 요인들이 사회불안의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절차인 세 단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밀접한 연관을 지으며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밀접한 연관을 지으며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야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불안,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및 그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각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록 1에 제시 되어 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사회불안이 더 높고, $t(672)=-2.45$, $p<.05$, 외상 경험이 더 많으며, $t(672)=-3.47$, $p<.01$,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 $t(672)=4.44$, $p<.001$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세분화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www.kci.go.kr

표 1.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N*=673)

구분		전체	중학생 (*n*=332)	고등학생 (*n*=341)	t
		M(SD)	M(SD)	M(SD)	
사회불안	수행불안	18.42(7.71)	17.77(7.60)	19.06(7.78)	-2.18*
	대인불안	36.85(13.01)	35.69(12.75)	38.00(13.18)	-2.30*
	사회불안 전체	55.28(19.10)	53.45(18.61)	57.05(19.42)	-2.45*
외상경험	대인관계외상경험	7.81(3.23)	7.26(2.84)	8.35(3.50)	-4.47*
	수행상황외상경험	8.88(3.26)	8.62(3.14)	9.12(3.37)	-1.98*
	외상경험 전체	16.69(6.01)	15.88(5.51)	17.48(6.37)	-3.47**
자기 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54.93(8.47)	56.29(8.45)	53.60(8.29)	4.17***
	사회적자기효능감	24.98(4.43)	25.57(4.23)	24.41(4.55)	3.40**
	자기효능감 전체	79.91(11.38)	81.86(10.95)	78.02(11.48)	4.44***

*p<.05, **p<.01, ***p<.001

표 2.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사회불안총점	-								
2. 수행불안	.87**	-							
3. 대인불안	.96**	.68**	-						
4. 외상경험총점	.64**	.53**	.63**	-					
5. 수행외상경험	.57**	.49**	.55**	.93**	-				
6. 대인외상경험	.61**	.50**	.60**	.92**	.71**	-			
7. 자기효능감총점	-.52**	-.45**	-.49**	-.33**	-.26**	-.34**	-		
8. 일반적자기효능감	-.43**	-.39**	-.40**	-.26**	-.22**	-.27**	.94**	-	
9. 사회적자기효능감	-.51**	-.42**	-.50**	-.33**	-.26**	-.36**	.77**	.51**	-

**p<.01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상경험과 사회불안 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 r=.64, p<.01 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r=.49, p<.01, 대인불안, r=.50, p<.01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 r=.50, p<.01, 대인불안, r=.60, p<.01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www.kci.go.kr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불안 간에는 높은 부적상관관계, r=-.52, p<.01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수행불안, r=-.39, p<.01, 대인불안, r=-.40, p<.01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수행불안,r=-.42, p<.01, 대인불안, r=-.50, p<.01도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 r=-.33, p<.01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r=-.22, p<.01, 사회적 자기효능감, r=-.26, p<.01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r=-.27, p<.01, 사회적 자기효능감, r=-.36, p<.01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관련 및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은 사회불안, F(2, 670)=237.75, p<.001, 수행불안, F(2, 670)=134.07, p<.001 및 대인불안, F(2, 670)=219.15, p<.0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42%, 29%, 40%였다.

따라서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30%, F(2, 670)=141.70, p<.001, 22%, F(2, 670)=92.12, p<.001, 28%, F(2, 670)=128.10, p<.001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그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행상황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673)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사회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42	9.96***	.42	237.75***
	수행상황외상경험	.28	6.61***		
수행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32	6.87***	.29	134.07***
	수행상황외상경험	.26	5.60***		
대인불안	대인관계외상경험	.42	9.95***	.40	219.15***
	수행상황외상경험	.25	5.93***		

***p<.001

www.kci.go.kr

표 4.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673)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사회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9	-10.36***	.30	141.70***
	일반적 자기효능감	-.23	-6.19***		
수행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0	-7.50***	.22	92.12***
	일반적 자기효능감	-.24	-5.95***		
대인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	-.39	10.35***	.28	128.10***
	일반적 자기효능감	-.20	-5.28***		

***p<.001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상경험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외상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33, p<.001,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 β=.64, p<.001.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35, p<.001, 이때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64,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감소하였다, β=.53, p<.001.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절차 세 단계를 충족하므로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22, p<.001,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

표 5.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673)

예언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62	.07	-.33***	-8.93***	.11***	79.79***
2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2.04	.09	.64***	21.69***	.41***	470.33***
3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1.68	.09	.53***	18.67***	.52***	360.54***
자기효능감		-.58	.05	-.35***	-12.16***		

**p<.001

www.kci.go.kr

으며, β=.49,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30, p<.001. 이때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49,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감소하였다, β=42, p<.001.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26,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31, p<.001. 이 때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49,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β=.40,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수행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34, p<.001,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 β=.60,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β=-.26, p<.001. 이때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60,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감소하였다, β=53, p<.001.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β=-.36,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 하였다, β=-.32, p<.001. 이 때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60,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β=.49,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대인관계관련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증명하기 위해 Sobe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Sobel, 1982).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zab=7.19, p<.001,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행외상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4.87, p<.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5.56, p<.001, 가 유미하며 대인외상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6.25,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ab=7.25,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각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외상경험, 사회불안의 평균점수가 높고,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상경험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누적된 외상경험이 많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입시 및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할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 및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누적된 실패경험은 자

www.kci.go.kr

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Bandura, 1997)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된 외상경험으로 인하여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는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의 학교생활에서,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및 수행평가 상황을 지도할 때 자기효능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불안과 외상경험,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오경자, 양윤란,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수행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사회불안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유하나, 2006; Beck, Emery & Greenberg, 1985; Leary & Kowalski, 1995; Wallace & Alden, 1991)와 일치한다. 외상경험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고 자기효능감은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상경험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사회불안의 중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모두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외상경험이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오경자, 양윤란,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를 지지한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보다 사회불안, 수행불안 그리고 대인불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보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을 더 잘 설명하였다는 강민지(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문혜신(2001)은 사회적 상황에서 실수를 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등 부정적 경험을 외상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에 대하여 논하였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에 의하여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보다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이 외상경험으로 더 크게 작용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을 다룰 때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을 모두 다루어주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외상경험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eck, Emery & Greenberg; 1985; Leary & Kowalski, 1995)와 같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불안, 수행불안 그리고 대인불안에 더 많은

www.kci.go.kr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시선에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수행상황에서 잘한다는 믿음보다 대인관계, 사회적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불안을 예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ck의 인지 모델, 자기제시모델(self-presentation model), Clark과 Wells의 인지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함께 사회불안 발생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제시(김은정, 1999; 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따라서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대인관계 상황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회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즉 외상경험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개인의 취약요인이 매개효과를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취약요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이목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행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타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 등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사회불안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유하나(2006)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높은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 모두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을 다루는데 중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외상경험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효능감을 낮춤으로서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상경험의 하위요인인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복합적으로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과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과 수행불안의 관계 및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는 특정 자기효능감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불안 및 대인불안이 특정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외상경험의 하위요인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난 자기효능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질과는 달리 비교적 변하기 쉬운 특질이다(Baudura, 198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수행상황관련 외상경험, 대인관계관련 외상경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모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청소년은 외상경험을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결국 외상경험으로 유발되는 청소년기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지역이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지역 특성의 효과가 있다는 점, 조사시점이 학력평가 이후라는 점, 자기보

www.kci.go.kr

고에만 국한되어 있어 각 변인들의 측정치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측정도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상을 표집 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사회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증상이 있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지 (2006).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은정 (1999).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33-45.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박은정, 하은혜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3), 59-78.

박하나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0-55.

신혜진 (2005). 자기불일치와 목표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엄미경 (2003). 중학생의 자기개념, 자의식, 자기효능감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Ⅰ: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유하나 (2006). 청소년의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용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 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15-219.

허재홍 (2005). 자율신경계 신체반응, 인지과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83-100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www.kci.go.kr

Association.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Ⅳ: Prentice-Hall.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Beidel, D. C. (1991). Social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545-552.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9). Psyc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l. *Journal of the Ameriac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6), 643-650.

Clark, D. M., & Wles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T.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69-9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Edelman, R. J.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288.

Essau, C. A & Peterman, F. (1997).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pidemiology, diagnostics and treatment (Ed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Amsterdam.

Essue, C., Conradt, F.,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Frayne, C. A., & Latham, G. P. (1987). Application of social learning theory to employee self-management of attend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387-392.

Gist, M. E. (1989). The influence of training method on self-efficacy and idea generation among managers. *Personnel Psychology, 42*, 787-805.

Kessler, R. C., McGongle, K., Zhao, S., Nelson, C., Hughes, M., Eschle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 Ⅲ-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LaGreca, A. M., Dandes, S. K., Wick., Shaw, K., & Stone, W. L. (199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v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www.kci.go.kr

Last, C., Perrin, S., Hersen, M., & Kazdin, A. (1992). DSM-Ⅲ-R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America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1070-1076.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Maddux, J. E., Norton, L. W., & Leary, M. R. (1998). Cognitive components of social anxiety: An investigation of self-presentation theory and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80-190.

Muris, P. (2002).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ymptoms of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on in a normal adolescen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337-348.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and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Slaby, A. E. (1989). *After shock: Surviving the delayed effects of trauma, crisis and loss.* New York: Villard.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Stemberger, R. T., Turner, S. M., Beidel, D. C., & Calhoun, K. S. (1995). Social phobia: An analysis of possible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26-531.

Strauss, C. C., & Last, C. G. (1993). Social and simple phobias in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141-152.

Tedeschi, R. G., & Calhoun, L. A. (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n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Wallace, S, T., & Alden L. E. (1991). A comparison of social standards and perceived ability in anxious and nonanxious 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237-254.

Widiger, T. (2001). Socail anxiety, social phobia, and avoidant personality In W. R. Crozier & L. E. Alde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Chichester: Wiley.

원고접수일 : 2008.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9.
게재결정일 : 2009. 1.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 Vol. 6, No. 1, 1-18.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Kook Hwa Lee **Eun Hye Ha**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The subjects were 673 students(meal 323 students, female 350 students) who belong to the middle schools and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adolescent assessed by Korea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AS-A),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SPAI-C), Traumatic experience scale and Self-Efficacy Scal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erformance, interpersonal anxiety were significant.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showed low but negative correlations. General, social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anxie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general, social self-efficacy had an effects on the performance and the interpersonal anxiety directly. Third,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performance,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erformance, interpersonal anxiety.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raumatic experience had an effects on the social anxiety directly, and these could influence social anxiety mediating by self-efficacy. It was developed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case of experiencing traumatic experience. So it wa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in adolescent's social anxiety.

Key words : social anxiety, performance anxiety, interpersonal anxiety, traumatic experience, self-efficacy

www.kci.go.kr

부록 1. 학년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중 1(N=143) M(SD)	중 2(N=109) M(SD)	중 3(N=80) M(SD)	고 1(N=167) M(SD)	고 2(N=174) M(SD)
사회불안	수행불안	52.90(18.65)	53.35(18.44)	54.60(18.97)	56.42(18.75)	57.66(20.08)
	대인불안	35.08(12.91)	35.95(12.63)	36.43(12.75)	37.53(12.77)	38.44(13.59)
	사회불안전체	17.82(7.47)	17.40(7.62)	18.18(7.87)	18.89(7.26)	19.22(8.27)
외상경험	대인관계외상경험	15.72(5.78)	16.08(5.37)	15.90(5.24)	17.63(6.42)	17.32(6.33)
	수행상황외상경험	7.22(2.97)	7.34(2.82)	7.23(2.68)	8.54(3.67)	8.18(3.32)
	외상경험전체	8.50(3.22)	8.74(3.01)	8.68(3.19)	9.10(3.25)	9.14(3.48)
자기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82.19(11.71)	82.62(10.68)	80.23(9.82)	77.66(11.82)	78.36(11.17)
	사회적자기효능감	56.58(9.01)	56.73(8.41)	55.18(7.44)	53.48(8.45)	53.72(8.15)
	자기효능감 전체	25.61(4.45)	25.89(3.98)	25.05(4.16)	24.18(4.71)	24.64(4.40)

www.kci.go.kr

부록 2.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673)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외상경험	자기효능감	-.62	.07	-.33***	-8.93***	.11***	79.79***
2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2.04	.09	.64***	21.69***	.41***	470.33***
3단계							
외상경험	사회불안	1.68	.09	.53***	18.67***	.52***	360.54***
자기효능감		-.58	.05	-.35***	-12.16***		
1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일반적자기효능감	-.57	.10	-.22***	-5.83***	.05***	34.02***
2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1.15	.08	.49***	14.38***	.24***	206.69***
3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99	.08	.42***	12.86***	.32***	156.27***
일반적자기효능감		-.27	.03	-.30***	-9.01***		
1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사회적자기효능감	-.35	.05	-.26***	-6.89***	.07***	47.47***
2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1.15	.08	.49***	14.38***	.24***	206.69***
3단계							
수행관련외상경험	수행불안	.96	.08	.40***	12.34***	.33***	162.96***
사회적자기효능감		-.55	.06	-.31***	-9.56***		
1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일반적자기효능감	-1.20	.13	-.34***	-9.35***	.12***	87.40***
2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43	.12	.60***	19.59***	.36***	383.64***
3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15	.12	.53***	17.57***	.43***	248.21***
일반적자기효능감		-.40	.05	-.26***	-8.49***		
1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사회적자기효능감	-.49	.05	-.36***	-9.97***	.13***	99.41***
2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2.43	.12	.60***	19.59***	.36***	383.64***
3단계							
대인관련외상경험	대인불안	1.96	.12	.49***	15.94***	.45***	278.20***
사회적자기효능감		-.94	.09	-.32***	-10.50***		

www.kci.go.kr

www.kci.go.kr